

#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주요 변경사항

#### 1) 유럽식품안전청 사료 첨가제 에톡시퀸의 안전성 재평가

- (검토배경) 2017년 6월, 유럽 위원회는 모든 동물 종의 사료 첨가물로 에톡시퀸의 승인을 중단했음. 2015년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관련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관련 데이터 부족과 사료 제조 과정 중 생성되는 불순물 피-페네티딘(p-phenetidine)의 존재로 인해 첨가제의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언급함. EFSA는 사료 첨가제 에톡시퀸을 재평가했으며 아직 특정 동물 그룹,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 에톡시퀸(Ethoxyquin)은 항산화 특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모든 동물 종 및 범주에 대한 사료 첨가제로 EU에서 승인되었음. 또한 해상 운송 중 어분의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화방지제로 사용됨.
- 그러나 피-페네티딘은 제조 공정 후에도 첨가제에 그대로 남고 변이 가능성이 있는 불순물임(즉, 동물 및 인간의 유전 물질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첨가제 및 물질관련 전문가들은 사육 동물에 해당 물질을 통한 위와 같은 위험이 존재함을 언급한 바가 있음. 반면, 이 첨가제는 닭, 돼지, 소, 토끼 및 생선과 같은 육류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에게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됨.
- 하지만 지금까지 동물성 식품 및 조직 내 피-페네티딘의 존재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전문가들도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성 또한 판단내릴 수 없었음.

- 전문가 패널은 첨가제에 이러한 불순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흡입을 통한 사용자의 간접노출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전문가들은 에톡시퀸 첨가제를 육생 동물에 사용할 경우 육상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에톡시퀸의 안전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이는 수중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한 전염 위험성이 있고, 바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에톡시퀸에 의한 해양생물의 전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위험을 배제하는 주체로서 첨가제 승인 중단을 검토할 때 EFSA의 의견을 고려할 것임.

## □ 시사점

- 에톡시퀸이 사료 첨가제로 사용될 경우 신장, 간 등이 손상되고 암을 유발하는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아직은 에톡시퀸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에서도 독성 살균제 에톡시퀸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유럽연합 내에서는 에톡시퀸의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은 물론 그 외의 식품에 해당 첨가제를 사용하는 관련 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에톡시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라 농약으로 분류가 되어 식품에 허용할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는 상황임. 그 예로 배의 경우 농약 수치가 3 mg/kg 넘지 않아야하며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함.

※ 출처 : <https://www.efsa.europa.eu/en/news/efsa-reassesses-safety-feed-additive-ethoxyquin>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2\\_01\\_01.jsp?pesticide\\_code=F00087&s\\_option=KR&s\\_type=7](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2_01_01.jsp?pesticide_code=F00087&s_option=KR&s_type=7)

## 1. 통관 동향 등 이슈

### 식품 살충제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

- 식품 내 잔류 농약에 대한 EFSA의 최신 연례 보고서는 2020년에 유럽연합에서 수집된 88,000개 이상의 식품 샘플을 다루고 있음. 결과 분석에 따르면 샘플의 94.9%가 법적 허용치 내에 속했으며, EU 통합 제어 프로그램(EU MACP, EU-coordinated control programme)의 일부로 분석된 12,077개 샘플의 98.2%가 법적 허용치 내에 있었음.
- EU의 MACP는 12가지 식품에서 무작위로 수집한 샘플을 분석함. 2020년에는 당근, 콜리플라워, 키위, 양파, 오렌지, 배, 감자, 말린 콩, 현미, 호밀 곡물, 소 간 및 가금류 지방을 분석했음. 동일한 바구니의 제품이 3년마다 표본 추출되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식별할 수 있음.
- 조정 프로그램에서 분석된 샘플 중: 68.5%(8,278개 샘플)에서 정량 가능한 잔류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9.7%(3,590)는 허용 수준 이하의 농도로 하나 이상의 잔류물을 함유했음. 1.7%(209)에는 법적 최대치를 초과하는 잔류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113(0.9%)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해당 프로그램의 자세한 결과는 EFSA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트와 그래프로 제공되므로 비전문가도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위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된 비교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EFSA의 연례 보고서에는 개별 EU 회원국,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서 수행하는 국가 통제 활동의 일부로 수집된 데이터도 포함됨.
- 국가 통제 프로그램은 잔류 농약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법적 침해가 확인된 제품처럼 위험성을 지닌 대상을 기반으로 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험 관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EUCP의 데

이터와 달리 유럽 전역의 상점 선반에 있는 식품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잔류물의 수준에 대한 통계적 대표성을 제공하지 않음.

-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는 잔류 농약에 대한 EU 소비자의 식이 노출을 추정하기 위한 귀중한 정보원임. EFSA는 그 결과 분석의 일환으로 식이 위험 평가를 수행했으며, 이는 2020년에 분석된 식품이 소비자 건강에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함.
- 그러나 유럽 제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이 제안되었음.

## 2. 변동사항

- 유럽식품안전청은 지속적으로 식품 내 잔류 농약의 위험 가능성을 조사하여 한계를 규정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음.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식품들에서 허용 수준 이상의 농약 잔류물이 발견되고 규정을 위반하는 수치도 많음.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잔류 농약 규정에 관심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3. 기타 주의사항 등

- 없음.

※ 출처 : <https://www.efsa.europa.eu/en/news/pesticides-food-latest-report-published>

## 1. 통관거부사례(3월)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3.10.)
  - 통관번호 2022.1414
  - 성분부적합으로 스웨덴에서 검역됨.
  - 2-클로로에탄올 0,64 mg/kg - ppm 검출됨.
  - 스웨덴에선 공식 압류 처리됨.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3.18.)
  - 통관번호 2022.162
  - 성분부적합으로 폴란드에서 검역됨.
  - 2-클로로에탄올 0,17 ± 0,085 mg/kg - ppm 검출됨.
  - 폴란드에서 폐기 처리됨.
  
- 팡이버섯, Enoki Mushroom (2022.03.25.)
  - 통관번호 2022.1776
  - 성분부적합으로 네덜란드에서 검역됨.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균 Present /25g 검출됨.
  - 당국에 내용 전달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